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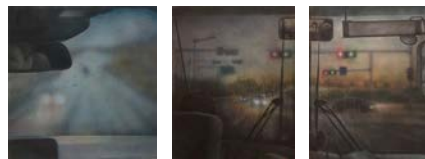
Youth #10
CICA Museum
February 19 - March 9, 2025
2025.2.19 - 3.9

Featured Artists 참여 작가: **Jaeseong Choi(최재성), Gabin Go(고가빈), Giulia Guasta Guarnaccia, Heo Jihoe(허지회), Michelle Ho, MINJAE KANG(강민재), Nguyen Khoi, Kim Yeo jin(김여진), Seokhwan KIM(김석환), Myungseon Kye(계명선), HAYUN LIM(임하연), Sunha Park(박선하), Park Keon woo(박건우), Honorata Pawlowska, Piotr Stechura, Armi Utrainen, Yuhan Wu, Anni Zhu**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Youth", running since 2017, showcases the work of emerging artists in their late teens and twenties. It provides a platform for talented young creators to express their voices and artistic visions. The exhibition features a diverse range of media, including photography, painting, video, interactive art, sculpture, and installation art.

2017년부터 개최되는 국제전 "Youth"는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비전있는 젊은 작가들의 관점과 시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진, 회화, 영상, 인터랙티브 아트, 조각, 설치 미술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Jaeseong Choi/최재성



"Tunnel vision_1" (2024), "Tunnel vision_2" (2024)

<Tunnel vision 시리즈>는 입장에 대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시야각에 따라 달라지는 물방울 속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이다. 이 시리즈는 차량에 탑승한 상황을 재현하여, 목적지로 향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나아가 이미지들은 구체적인 배경을 떠나 모두 흐린 풍경 속에 처해있다. 실제 바깥풍경은 불분명하고 느낌만이 제시된다. 이렇듯 흐린 풍경 위에 물방울들이 맺혀있다. 물방울에 투과되어 비쳐지는 이미지는 비교적 선명한듯 묘사되어있다. 또한 그 이미지는 실제 풍경에서 일정한 부분의 풍경만을 비추어 주는데, 물방울에 투과되어 보여지는 풍경은 그 물방울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야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부분적이기에 선명하다.

개인의 입장이란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내면과 외면으로 분리된 개인은 자신의 외부의 실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은 내 시각과 몸이 처해있는 위치에 따라 부분적인 세상만을 볼때만 가능하다. 외부세계에 대해서 추상적인 느낌만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입장은 확신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데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못해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여러가지 입장을 견지하기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작가는 이렇듯 Tunnel vision시리즈를 통해 입장에 갇힌 인간에 대한 아포리아적 상황을 제시한다.

Jaeseong Choi/최재성: 작업은 주로 개인적 경험 속, 삶에 적용되는 몇가지 역동적인 힘의 변증법을 발견하고 표현한다. '나'라는 작은 개인과 각각의 고유의 논리가 존재하는 세상의 규약 또는 형식 사이에서 힘들의 작용을 포착한다. 입장을 가지는 개인은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어, 갇힌 세상에서 살아간다. 자신의 시야각에 의해 가려진 외부의 세상을 마주할 때 좌절하지만, 보이지 않던 세상은 다시 나의 시야 안으로 편입되어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Gabin Go/고가빈



"Ocean depths " (2024)

It is also a follow-up to the entire series. I think all the patterns that living things have are similar and interconnected. Human organs are expressed as the deep sea of the sea. You can see that organs and organs are gradually connected, starting with the eyeball.

전 시리즈의 후속작이기도 하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은 서로 다 닮았고 연결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장기를 바다의 심해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눈알 을 시작으로 점점 장기와 장기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 볼 수 있다.

Gabin Go: 추상적 객관전 묘사를 병합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없었던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Giulia Guasta Guarnaccia



“Data Center[ed]” (2024)

“Data Center[ed]” is an interactive web project that maps network infrastructures like data centers and submarine cables, alongside mines where raw materials for the tech industry are sourced. The project challenges the dominant narrative that promotes the internet and technology as immaterial, highlighting thei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It raises questions about the origins of tech materials, the distribution of network infrastructures, and their ownership

Giulia Guasta Guarnaccia was Born in Milan, Italy, in 1999, she is a digital artist and hacktivist with an interdisciplinary and intersectional approach to her work. She graduated with honors in New Technologies of Art from the Brera Academy of Fine Arts in Milan. Currently, she is pursuing a master’s degree in Visual Arts and Curatorial Studies at NABA in Milan and a Postgraduate Program in Eth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University of Turin.

She exhibited at the Connections 2024 exhibition in Portoferraio (IT) as part of the Acqua dell'Elba Prize and at The Holy Gallery (UK) in the virtual group exhibition Code. Her artworks has been published on Visual Art Journal for the #13 Issue of 2024 and on AI-Tiba9 for the #18 Issue of 2024, she also has been selected for the AI-Tiba9 Directory 2025 of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ists.

Heo Jihoe/허지회



“담연” (2024)

도시의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피어나는 들꽃들은 단순한 존재를 넘어서선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 그들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면서도 결코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담연히 수용한다. 마치 세상의 모든 혼란과 시련을 초연히 바라보는 듯한 그들의 모습 속에는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그 빛을 피하지 않으며 비바람에 젖으면서도 다시 고개를 드는 들꽃의 모습은 삶의 무상함을 체념이 아닌 수용으로 바꾸는 태도를 보여준다. 나는 이러한 들꽃의 모습을 통해, 가여움과 담담함이 서로 얽혀 만들어내는 고요한 아름다움 속에 잠기게 되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피어나고, 스러지며, 다시 피어나는 들꽃의 순환은, 삶의 여린 순간들 속에서 발견되는 단단함을 시사한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고, 그 순간이 지닌 아름다움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묵직하게 다가온다. 작품은 그 미묘하고도 깊은 아름다움을 통해, 삶의 여린 순간들이 지닌 단단한 아름다움 을시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들꽃의 담연한 태도, 그리고 그것이 주는 고요한 위로와 감동을 통해, 나는 관객들이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淡然’이라는 제목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상징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연의 빛을 잃지 않고 고요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허지회(1996)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화예디자인 예술학 석사학위를 졸업하고 현재 같은 학교에서 디자인 전공 박사 과정 중에 있다. 서울 청파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For another lov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다수의 단체전에서 화예 설치와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세상을 겪어 나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화예작품 속에 담아내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ichelle Ho



"Boxes in Boxes in Boxes and nothing" (2023)

Boxes in Boxes in Boxes and nothing is a self-reflective artist's book, featuring a box structure, small round pebbles, ribbons, and text. Through the audience's interaction, this work communicates the artist's obsession with "control" and the resulting self-destruction. *Boxes in Boxes in Boxes and nothing* consists of layered black box structures and drawers that open from the side, presenting a mysterious appearance that resembles a well-wrapped gift or a cold concrete building. On the surface, it seems enigmatic. When the audience pulls the attached ribbon, the drawer opens and the white pebbles inside spill quickly onto the floor, scattering across the table and elsewhere. The audience, unprepared for this, is bewildered and unable to comprehend the situation. The artist indirectly invites the audience to destroy the projection of "completeness" and shares the anxiety, emptiness, and eventual stability that may come from such loss.

As the audience continues to interact with the work, the once high and sturdy structure loses its initial neatness and charm. After the complete disintegration of the structure and the spilling of the pebbles, nothing remains. The only things left are the audience, surrounded by chaos, and the text printed in white on black paper. This text reflects the artist's insight, gained from a state of nothingness after experiencing loss due to her obsession with control, while also offering comfort to the audience, who may feel a similar sense of defeat through the experience conveyed by this work. – "...원래의 나는 더 굳건한 사람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 아예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것, / 모든것을 통제할수 있길 바라는 것은 / 너무 많은 욕심인지도 모른다. / 겨우 인간 주제에 왜 이렇게 많은 걸 짊어지려 하는 걸까."

("...because I hope for myself to be something more unwavering. / wanting to defy destruction, / to control everything / may be too much greed. / why does a mere human try to carry so much")

Boxes in Boxes in Boxes and nothing 은 상자 구조, 작은 둥근 자갈, 리본, 그리고 글이 포함된 자가 성찰적인 아티스트 북입니다. 이 작업은 독자의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통제"에 대한 작가의 집착과 그로 인한 자기파괴를 드러내고 전달합니다. 층층이 쌓여있는 흑색의 상자 구조들과 옆에서 열리는 서랍들이 있는 이 작업물은 마치 잘 포장된 선물 같기도,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을 형상하기도 하며 겉으로 보기에 오묘한 모습입니다. 독자가 부착된 리본을 당기면 서랍이 열리며 내부에 담겨있던 백색 자갈들이 테이블 너머 바닥 이곳 저곳으로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이를 예상치 못한 독자는 당황스럽고 이 상황이 이해될수 없습니다. 작가는 "완성"을 투영하는 존재를 간접적으로 독자가 파괴하기를 초대하고 소실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허무함, 그리고 언젠가 도달할 안정 까지 공유합니다.

작업과 상호작용 할수록 높고 견고해보이던 하나의 구조가 초기의 잘 정돈된 근사함을 잃어가고, 모든 구조를 해체하고 내부에 있던 자갈들이 모두 쏟아지고 난 후에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혼돈에 싸여있는 독자와 흑색 종이에 백색으로 인쇄된 글 뿐입니다. 이 글은 통제에 대한 집착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미 잃어보고 놓쳐본 그녀가 무의 상태에서 얻은 깨달음임과 동시에 이 작업이 전달한 경험으로 비슷한 패배를 느꼈을 독자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 "...원래의 나는 더 굳건한 사람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 아예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것, / 모든것을 통제할수 있길 바라는 것은 / 너무 많은 욕심인지도 모른다. / 겨우 인간 주제에 왜 이렇게 많은 걸 짊어지려 하는 걸까."

Michelle Ho, born in Seoul, South Korea, creates artists' books. She has exhibited with Kalamazoo Book Arts Center (Kalamazoo, MI), Georgia Center for the Book (Decatur, GA), Mana Contemporary (Chicago, IL), and SITE (Chicago, IL). Her work is held in the collection of the Frick Fine Arts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nd has been featured in various art book fairs, including Unlimited Edition, Multiple Formats, Seattle Art Book Fair, Boston Art Book Fair, and Pittsburgh Art Book Fair. She received a BFA fro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with a focus on Printmedia.

Michelle Ho (1999년 대한민국 서울 출생)은 자아 성찰 및 기록에 대한 아티스트 북 작업을 한다. 작가는 칼라마주 북 아트 센터 (칼라마주, 미시간), 조지아 센터 포 더 북 (디케이터, 애틀랜타), 마나 컨템포러리 (시카고, 일리노이), 사이트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전시한 바 있다. 작가의 작품은 피츠버그 대학교의 프릭 파인 아트 라이브러리에 소장 돼 있으며 다수의 아트북 페어에 소개되었다. 최근 대표 아트북 페어로는 언리미티드 에디션, 멀티플 포맷, 시애틀 아트북 페어, 보스턴 아트북 페어, 피츠버그 아트북 페어가 있다. 작가는 시카고 예술 대학교에서 미술 학사 학위를 받았다.

MINJAE KANG/강민재



“미, *Type Meaning*” (2023), “환각의 결정체, *Crystal of Hallucination*” (2024), “비어있는, *Empty*” (2024)

미, *Type Meaning*: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물을 처음 만날 때 인상이나 관상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판단하곤 한다. 인상이 부드러우면 선한 사람으로, 반대로 인상이 좋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함께 지내다 보면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의외로 괜찮았던 경우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일상에서 쌓아온 편견의 결과이며, 이러한 판단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에서 인정 욕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 인정 욕구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길 원하지만 동시에 남들이 어떻게 자신을 볼지에 대한 불안감과 편견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가 첫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나타나며, 이는 마치 외형만 보고 뱀을 징그럽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뱀은 외관상 징그럽고 위험하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양의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뱀이 부활, 불멸, 생명을 상징하며, 신화 속 헤라클레스의 매듭도 뱀 모양으로 되어 있어 행운을 의미한다. 이번 작품에서는 이처럼 뱀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상반된 인식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 욕구와 편견의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다. 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가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작품의 색감은 오렌지, 보라, 붉은 계열을 사용해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 고정된 편견에서 벗어나 여러 관점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결국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인정 욕구에 따른 첫인상의 편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뱀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이 가진 편견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환각의 결정체, *Crystal of Hallucination*: 다양한 욕구가 집착으로 변하면서 일어나는 심리적 환각을 표현했다. 복잡한 구조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상징하며, 다양한 색상은 욕구 충족 시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담고 있다. 작품 중앙에 위치한 흰 선은 이성이 유지되는 순간을, 밑으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선은 욕구로 인해 희미해지는 이성을 표현하고 있다.

비어있는, *Empty*: 집착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려는 강박을 느끼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하나의 '욕구의 구멍'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 작품에서는 이성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직선이 등장하며, 이는 앞서 제시된 '환각의 결정체'의 연작으로, 욕구에 의해 흔들리는 인간의 이성을 상징한다.

Nguyen Khoi



“+3-1” (2024)

“+3-1” is a work I created by repurposing components from my damaged infrared electric stove. The work consists of a heating plate in an infrared stove, a functional clock, and a table for measuring tooth color. The piece is inspired by Vietnam's current birth and mortality statistics, which are approximately 3,828 children born and 1,896 people dying on average every day. In addition, the work is also influenced by the Vietnamese proverb: teeth and hair are the human figure.

Khoi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based in Ho Chi Minh City, Vietnam. Khoi's creative practice explores human identity, imitating and interrogating social reality by complicating ordinary images and behaviors through videos, sound, and found materials, especially household electronic items. They generate curiosity and uncertainty in human perception while simultaneously responding to contemporary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He earned a bachelor's degree in multimedia arts from the University of Fine Arts in Ho Chi Minh City and is currently pursuing a master's degree in fine arts at Falmouth University in the UK. In addition, he is also a co-founder of Chinbo Collective which is a contemporary art group in Vietnam.

Kim Yeo jin/김여진



“시선_마주보기” (2024)

The work was inspired by Philip Pareno's "My Room Is Another Fishbowl." If you look at the top left, you can see a slight reflection of yourself. The eyes between yourself and the fish engage and face each other. It reveals that living in the standard of others' eyes is in a situation similar to that of the fish in the fishbowl. At the same time, you have time to ask yourself, introducing emotions to objects you thought were different beings.

작품은 필립 파레노의 '내 방은 또 다른 어항'이라는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진행하였다. 왼쪽 상단 부분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살짝 비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과 물고기 사이의 시선이 맞물리며 마주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 속 기준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어항 속 물고기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드러낸다. 동시에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며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Kim Yeo jin/김여진: The unknown, still unfamiliar elements fill me, as I explore the realm of choices made impossible in reality through painting

모르는 것, 아직은 낯선 것들로 나를 채우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선택의 영역을 회화로 풀어나간다.

Seokhwan KIM/김석환



“병리적인 방어기제”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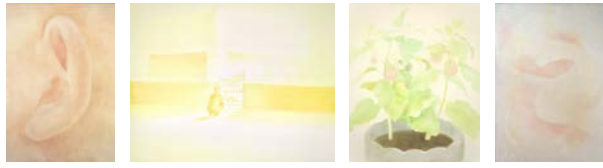
I have been attentive to the fact that each person has a different inner and outer self. Behind the outward appearance, there exist hidden emotions and impulses, and particularly, the dark inner side does not easily reveal itself. In this work, I chose to focus on that dark inner side and aimed to express it by extracting the emotions as if dissecting them. Threatening realities or events approaching from the outside stimulate the latent impulses within us, but we often refuse to acknowledge them. I captured this process of denial and conflict through the dynamic brushstrokes and colors of abstract expressionism. The movement of the brush and the collision of colors represent the whirlpool and confusion occurring within as I created this piece.

나는 사람마다 내면과 외면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는 숨겨진 감정과 충동이 존재하며, 특히 그 어두운 내면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그 어두운 내면을 선택하여 마치 해부하듯이 감정을 끄집어내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협적인 현실이나 사건들은 우리 안에 잠재된 충동을 자극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이러한 부정과 갈등의 과정을 추상표현주의의 역동적인 붓질과 색채로 담아냈습니다. 붓의 움직임과 색의 충돌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와 혼란을 나타내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Seokhwan KIM/김석환: I am artist Seokhwan KIM, who wishes to become an antidote for those who have felt mental anguish like myself by dissecting emotions through my work. People simultaneously possess a persona they wish to show society and a self they do not wish to reveal. I am currently working on transferring that self they do not want to show onto the canvas. Through this, I strive to help those who have experienced divine pain to face the self they do not want to see, reconcile with it, and overcome their suffering.

작품을 통해 감정을 해부하여 저처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이들에게 해독제가 되고싶은 작가 김석환입니다. 사람은 사회에 보여주고자 하는 페르소나와 보여주기 싫은 자아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여주기 싫은 자아를 화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보기 싫은 스스로의 자아와 대면하고, 그것과 화해하여 고통을 극복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Myungseon Kye/계명선



"you can say anything" (2024), "shameful people" (2023), "The tree that bears eggs" (2024), "patting" (2024)

I don't want the artwork to be complete in and of itself. Just as a viewer naturally follows a painting, I want the artwork to breathe together with the viewer, rather than existing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person or the environment. I also mainly use non-stimulating colors and everyday imagery. I aim for it to feel natural and unobtrusive. In other words, I want it to evoke a sense of familiarity and warmth.

Most representatively, *'you can say anything'* is simply a painting of my ear. However, with the audience's appearance, this work becomes able to hear the audience's stories and is finally completed. *'Shameful people'* is a series of works I've been doing for a long time. By looking at the naked figure, the viewer may either project themselves onto the figure or become the one peeping, allowing them to say to themselves, 'It's okay.' *'The tree that bears eggs'* is a work about mistake. It is magic created not by mistakes but by expectations and memories. Lastly, *'patting'* focuses on expressing a more tactile touch while exploring the material properties of candles.

작품이 작품 자체로 완성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따라오듯, 보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작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같이 호흡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로 자극적이지 않은 색채와 일상적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자연스럽게 거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익숙함과 친근함을 위함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you can say anything'*은 단순히 저의 귀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는 관객이 등장함으로써 이 작업은 관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shameful people'*은 예전부터 이어오던 시리즈의 작업입니다. 알몸의 인물을 바라보며 그 인물에게 자신을 대입하기도, 연보는 자가 되기도 하며 스스로에게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The tree that bears eggs'*은 착각에 관한 작업입니다. 실수가 아닌 기대와 추억으로 만들어지는 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patting'*은 양초의 물성을 연구하며 보다 촉각적 손길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Myungseon Kye/계명선: I paint as if writing a letter, as if greeting someone. For me, painting feels like asking how someone is doing. Perhaps it's easy to say that I'm more like a child in this sense. I hold on to a bit more of my childlike innocence than others, with a longing for things that have no form. I want to act with a heart free of doubt. My work is based on painting, and I use various materials in my process. I talk about the things that connect the empty spaces between people. I call that love.

편지를 쓰듯, 인사를 건네 듯, 그림을 그립니다. 저에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안부를 묻는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이에 가깝다 말하면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동심을 붙잡고 있고 형체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늘 의문 없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회화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작업합니다. 사람사이의 빈 여백을 연결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HAYUN LIM 임하연



"ARCHIVE" (2024)

There is a profound emotion I have felt when discovering beauty that is usually invisible amidst pain. Based on that emotion, I unfold a heavy, monochromatic world. Random events, illogical emotions, and fleeting moments of the unconscious create decisive moments. I collect and translate the feelings these moments generate. By accessing the deep subconscious of my mind and listening to my inner voice, I turn them into sources of creativity. I treat the totality of emotions as potential material, combining and expressing the luminous elements within them. Raw materials enter, pass through a filter, and what remains becomes my own.

Watching theater inspires me, and I aim to incorporate theatrical elements into my work. Theater and art share the commonality of allowing audiences to witness and breathe in the events created by the artist. I focus on the spatiality that the stage provides and the dynamic movements of the performers. The dramatic quality that plays bring imbues us with a sense of vitality and existence. I spray ink onto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with an airbrush, using compressed air from a compressor to

disperse the ink into a mist-like state and settle it onto the surface. This new form of ink painting creates a fantastical atmosphere and captures the aesthetics of a futuristic world. Ink, as a material, encompasses many things because it is the amalgamation of all colors. The scenes captured in ink hold both the fleeting moment and eternity.

Every person is unique and imperfect. Humans are beings with flaws and pain. I want to capture that very imperfection in my work. I wish to use all my anxieties as a driving force for creativity. Through my art, I aim to share my inner world and convey my unique perspective and landscape. For me, art is a sedative, a translator, and a window to the soul.

고통 속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느꼈던 거대한 감정이 있다. 그 감정을 기반으로 무거운 흑백 세상을 펼친다. 우연한 사건, 비논리적 감정, 일순간의 무의식이 결정적 순간을 만든다. 그 순간이 만든 감정을 수집하고 번역한다. 나의 마음 깊은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창작의 원천으로 삼는다. 감정의 총합을 잠재적인 자료로 삼고, 그 안에서 빛나는 요소를 조합하고 표현한다. 원료가 들어온다. 필터로 거른다. 남은 것이 내 것이 된다.

연극을 보며 영감을 떠올리고, 연극적인 요소들을 작품에 접합하고자 한다. 연극과 미술은 작가가 만든 사건을 관객들이 함께 목격하고 호흡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대가 주는 공간성에 주목하며, 연극자가 주는 동적인 몸부림에 집중한다. 드라마가 부여하는 희곡성은 우리에게 생명감과 더불어 존재를 부여한다. 한지 위에 에어브러쉬를 통해 먹물을 분사하고 안착시킨다. 컴프레셔에서 공급되는 압축 공기의 분출 효과로 먹물을 안개 상태로 만들어 뿌리는 새로운 형태의 수묵화이다. 에어브러쉬 사용은 판타지적인 느낌을 부여하고 미래 세계의 미감을 구현한다. 먹색은 모든 색이 뒤섞여 있음으로 많은 것을 포괄하는 물질이다. 이처럼 먹으로 포착한 장면에는 순간이자 영원이 담겨 있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불완전하다. 인간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존재이다. 바로 그 불완전함을 작업에 담고 싶다. 내가 가진 모든 불안을 창의성을 이끄는 힘으로 쓰고 싶다. 작품을 통해 내면을 공유하고 나만의 독특한 관점과 풍경을 전달하고 싶다. 나에게 예술은 안정제이며 번역기이자 마음의 창이다.

Sunha Park/박선하



"Our Big Sisters (우리의 X언니들)" (2024)

This work begins at the intersection of virtual reality and improvisational movement. By utilizing Oculus Meta Quest and Quill, I explore the boundaries of the "body," questioning how interacting with something that physically doesn't exist can bring about changes for both the performer and the observer. In VR, I experiment with the possibility of creating movements with a body that visually exists but lacks physical substance. As the project progressed, I discovered that the concept of "time" operates in a unique way in the virtual world. In VR, it's difficult to perceive the passage of time, and when the headset is removed,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has often passed in the real world. This left me with a feeling of having lost track of time. VR work exists solely within the virtual realm and thus cannot be physically confirmed. I reached a turning point when I realized that the concept of frozen time also exists within history. Around this period, I was studying modern Korean history, and it became clear that many young Koreans have experienced inadequate historical education. The teachings on colonialism, war, and division were superficial, and we lost the connection between Korea a hundred years ago and Korea today. This is similar to the notion of frozen time within the virtual world. Thus, I brought the stories of frozen time into the virtual realm. Through physical gestures, the "stagnation of time" in both virtual reality and modern history begins to flow again. As hidden stories emerged, the body naturally started to move. Our sense of isolation stems from being disconnected from time.

이 작업은 가상현실과 즉흥적 움직임의 교차점에서 출발한다. 오쿨러스 메타 퀘스트(Oculus Meta Quest)와 킴(Quill)을 활용해 '신체'의 경계를 탐구하며,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연가'와 교류하는 행위가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진다. VR 안에서 시각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몸과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가상세계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VR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고, 기기를 벗었을 때 현실에서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있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시간을 잃어버려 속은 느낌이 들었다. VR 작업은 가상세계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멈춰진 시간이라는 개념은 역사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며 변곡점을 찾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나는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많은 한국 청년들은 불충분한 역사 교육을 경험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이다. 식민지와, 전쟁, 분단에 관한 교육은 피상적이었고, 우리는 100년 전 한국과 현재의 한국 사이에서 정체성의 연결을 잃어버렸다. 이는 가상세계 속 멈춰진 시간이라는 개념과 유사했다. 그래서 멈춰진 시간 속 이야기를 가상세계로 불러왔다. 가상세계와 근현대사 속 '시간의 정체'는 신체적 몸짓을 통해 다시 흐르게 된다.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의 고립감은 시간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Sunha Park/박선하: I am Sunha Park, a creator who visualizes the invisible. I explore entities like contemporary anxieties, temporality, trauma, and ideologies that are intangible yet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humans, and reinterpret them through audiovisual media.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reality, painting, improvisational movement, and video, I transform these entities into sensory experiences and convey my stories. This work represents my attempt as a young artist in my 20s to understand a world fraught with hatred and conflict. By uncovering unnoticed, intangible influences, I connect them to the deficient self that has emerged due to Korea's unique history. I critically approach the past, adjust the coordinates of the

present, and create stories that embrace the remnants of a wounded era. Currently, I am studying at PaTI (Paju Typography Institute), expanding my horizons in the direction of interdisciplinary arts such as performance art, video, storytelling, and mime. 저는 '비가시적인 과거를 가시화하는' 작업자 박선하입니다. 동시대의 불안, 시간성, 트라우마, 이데올로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비물질이지만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찾아 시청각 매체로 재해석합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그림, 즉흥움직임, 영상을 통해 이러한 존재를 감각적으로 변환하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는 혐오와 갈등으로 점철된 세상을 이해하려는 20대 청년 작가로서의 시도입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비가시적 영향들을 발굴하다 보면, 한국 특유의 역사 때문에 발생한 결핍된 자아로 연결됩니다. 과거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현재의 좌표를 수정하고, 동시에 상처받은 시대의 잔재인 인간을 보듬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PaTI)에 재학하며 퍼포먼스아트, 그림, 영상, 스토리텔링, 무연극 등 다원예술의 방향으로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박건우 (Park Keon woo)



"겨울 산책" (2023) "둔전리2" (2023)

박건우는 작업의 시작점으로 누군가를 기다렸던 경험을 선택한다. 그는 기다림의 감정을 공간으로 옮겨놓고, 풍경을 통해 누군가의 초상을 만들어낸다. 떠나서 볼 수 없는 혹은 그 순간 함께 있던 그들을 공간으로 치환하여 기록한다. 겨울 산책과 둔전리 2는 작가의 동네를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겨울이 누군가를 기다리기에 더 힘든 계절이라 생각했다. 두 작품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을 포착하고 담아내어 차가운 환경에도 남아있는 작은 온기를 표현하려 했다.

박건우 (Park Keon woo): 저는 무대미술을 전공하여 공연과 회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간을 통해 어떠한 대상을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저에게 공간은 그 당시 함께 있던 사람 그 자체이고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풍경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유화를 캔버스 위에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면서 대상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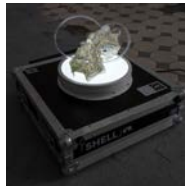
Honorata Pawłowska



"Ana" (2024)

Honorata Pawłowska was born in Warsaw. She is a Polish student at the Academy of Fine Arts in Warsaw, where she is majoring in interior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From a young age, she has been involved with art, but it was not until she began her university studies that she embarked on her journey with abstract painting. Her early experiences with painting started with outdoor painting sessions during her childhood. Nowadays, she not only leads these outdoor sessions but also manages her own group of young artists at the Atelier Foundation in Warsaw. Her work primarily focuses on abstractions inspired by nature, especially light and colors found in the natural world. She expresses her emotions through the use of colors, which she holds in high regard, second only to form. Pawłowska is constantly experimenting and searching for her own unique path in the realm of painting. Her interest in art extends beyond painting to include dance and music, particularly classical and folk music. This broad appreciation for the arts has led her to develop another passion: playing the cello.

Piotr Stechura



"SHELL" (2024)

The item was designed as a “protector” for the hand and forearm. The concept of sampling reality is crucial, as it explores the organic structure of the shell—an enduring protector of life for millions of years—reimagined and digitally produced.. The title shell alludes to the masterpiece that is “Ghost in the Shell”—also asking the question about the dystopian future of humanity and our planet in an era of increasing digitalization and climate disasters, where we are awakened daily by notifications of discoveries previously known only from cyberpunk cultural works. Can the technologies we see as innovative today contribute in the future to solving the problems they themselves co-create? 「SHELL」invites reflection on the boundaries between the natural and the artificial.

Piotr Stechura - a multidisciplinary artist, a graduate of the Faculty of Intermedia at the Academy of Fine Arts in Cracow, and currently studying at the Faculty of New Media in Warsaw. His work investigates the tension between organic and technological elements, emphasizing the transformation and redefinition of objects. He uses techniques like 3D printing and reprocessing found materials to explore contrasts in texture and form, camouflaging the original purpose of objects to reveal new meanings. His art challenges perceptions of the boundaries between the physical and virtual worlds, drawing from dystopian themes to reflect on identity and personal freedom in a rapidly evolving reality.

Armi Utriainen



"To Those Who Couldn't Grow Their Hair" (2024)

As I think about preparation, I think about how unfair it can be. I think about people who can't prepare mentally or physically. People who don't have time for themselves. Those who are preparing for death. I think about the children in Palestine who can't prepare for adulthood. I think about babies who never learn to wash themselves. I think about those whose hair can't grow. Taking care of oneself is strange. As children, we don't know how to wash our hair, so someone else does it for us. For a while, we can do it ourselves, but then when we are old, we need help again. When we can wash our hair ourselves, it feels nice if someone else does it for us. Maybe it reminds us of childhood. I think about my sister's long hair. She just turned 18. And I think again about those who will never reach that age. I wanted to wash my sister's hair and focus on the simple privileges of everyday life. My privilege of having a sister, water, and everyday life.

Armi Utriainen: born in 2003, is a Finnish photography student from the Lab Institute of Design and Fine Arts. She mainly works with photography, video and writing and enjoys combining analog and digital methods. She likes to create stories and complete tasks in her works and she finds text to be an important part of them. She finds the meaning and process of the work always more interesting than the technique she is using. Armi wants to make the viewer question the purpose behind her work. She is inspired by sleepless nights and the naivety of youth.

Yuhan Wu



"Contours of Loneliness" (2023)

Yuhan Wu: Born in China, Yuhan Wu studied cinematography at the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During her time in Beijing, she engaged in numerous visual projects and was recognized with the prestigious Chinese Outstanding Young Artist Award. Following the great success of her graduate show, Yuhan was hired by renowned artist Man Chen to work at her studio. In 2022, Yuhan moved to London to further her career as a visual artist. She earned her Master's degree in Photography from the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in 2024. Yuhan's work primarily explores them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nd the influence of social environments. With a unique perspective shaped by her diverse experiences, Yuhan continues to create impactful visual art that resonates with audiences globally.

Anni Zhu



"No Time's Land" (2024), "Inverted World" (2024), "Recap" (2024)

Zhu Anni is a Chinese visual artist, now based in London. She graduated from the London College of Fashion with a Bachelor's degree in Fashion Media and a Master's degree in Fashion Futures. Her work often explores the intricate connections between social phenomena, daily life, personal feelings, and emotions. Her works are also inspired by her own emotional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delicately capturing these feelings and examining how they shape perceptions and behaviors. Through her work, she continually strives towards a more ideal way of living.